



제목	Ancient Persia: A Concise History of the Achaemenid Empire, 550-330 BC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 1. 20.
저자	Matt Waters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74
ISBN 또는 ISSN	978-0521253697

내용 요약

이 책은 아케메네스에 대한 입문서로서 정치사 연대기이다. 세부적이면서도 명확한 설명을 담고 있고, 이미지와 지도를 첨부하여 초보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그리스 문헌 사료와 왕실 비문, 점토판, 연대기, 편지 등 다양한 형태의 근동 사료를 활용하여 그리스와 비그리스 사료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 소아시아와 동부 지중해에서 그리스인들의 활동을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책은 12개의 작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그리스와 근동의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 2장은 엘람, 바빌로니아, 아나톨리아의 왕국 등 초기 철기 시대의 이란 지역을 설명하였다. 3장은 키루스의 등장, 4장은 키루스의 사망과 캄비세스의 치세, 비문과 헤로도토스의 글을 근거로 다리우스의 계승을 다루고 있다. 5-8장은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사회제도, 조세제도,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마즈다 개념 등을 설명하고 있다. 9-11장은 기원전 460년대-330년대 왕들의 치세를 서술하였다. 계승과 관련된 궁정 음모는 그리스 문학에서 주요 주제로 사용되었는데, 근동 사료에서도 다양한 반란들이 언급되어 있다.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역할, 기원전 4세기 그리스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페르시아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1장은 마케도니아의 부상,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종결되었다. 그의 성공의 원인은 페르시아가 붕괴 직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군사적 능력에 있었다. 마지막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외국인 왕으로서 직면했던 통치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